

## 아레오바고에 선 사도 바울

김학철\*

### 1. 서언

사도행전이 그리는 사도 바울<sup>1)</sup>은 다양한 정체를 지닌 인물로 등장한다. 사도행전의 바울은 바리새파이자 다소 시민이고 로마 시민권자이자 동시에 기독교의 사도이다. 반대로 사도행전의 바울은 적대자들에 의해 ‘이단’으로, 헬라 문화의 반대자로,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힌 자로, 거짓된 기독교 선포자로 고발된다. 학자들은 이러한 복잡한 바울의 신분을 두고 역사적 진위 여부를 뜨겁게 논쟁했다. 역사학적 문제는 거듭된 토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바울의 정체에 관한 역사학적 논쟁에만 치중하여 사도행전의 바울 보도가 갖는 다른 의의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문을 협소하게 보는 것이다.

1세기 말 인종적으로 혼합된 공동체였던 누가 공동체는 다양한 인종으로 활기를 띠었지만 동시에 문화적 충돌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sup>2)</sup>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는 공동체의 신앙적 합의를 도출하고, 외부 세계에 대해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조절할 임무가 있다. 공동체의 지도자인 누가 기자도 공동체 내부에서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겪는 문화적 갈등을 해소해야 했으며, 헬레

---

\* 연세대학교 강사, 신약학

1) 누가 기자는 사도행전에서 이른바 ‘회심’과 상관없이 사도의 이름으로 사울과 바울을 혼용한다. 김학철, 『손으로 읽는 신약 성서』 (서울: 크리스천헤럴드, 2006), 37-40. 이 논문도 그 전통에 따라 사울과 바울을 혼용하고자 한다.

2) 누가 공동체에 관해서 Halvor Moxnes, “The Social Context of Luke’s Community,” *Gospel Interpretation* (Harrisburg, Pa: Trinity Pr Int, 1997), 166-177를 보라.

니즘이라는 문화적 환경에 신앙 공동체가 어떤 견해를 가져야 하는지 방향을 설정해야 했다.<sup>3)</sup> 이러한 상황에서 다중 정체성을 가진 바울과 그의 이야기는 누가 기자에게 문화적 문제에 관한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에 좋은 통로였다. 특별히 바울의 아테네 입성과 그곳의 중심지인 아레오바고에서 헬라 철학자들을 만나 토론하고 연설하는 장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합 공동체이자 선교 공동체인 누가 공동체의 문화적 갈등과 수용 문제를 다루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이야기 현장이다.<sup>4)</sup>

이 논문은 사도행전 17장 16-34절을 중심으로 다소 시민이자 유대인이며 기독교의 사도인 바울이 당시 아테네라는 헬라 문화의 상징적 도시에서 헬라 문화와 어떻게 만나고 헤어졌으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방 지역에서 선교에 헌신하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주변 문화와 맺는 관계 양상을 분석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된 누가 공동체 내부의 인종적, 문화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오늘날 비기독교의 지배 문화 환경에 있는 기독교회가 주변 문화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지, 교회 구성원의 다양한 출신 배경에서 오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참조가 될 수 있다.

## 2. 폄하되지 않는 헬라 시민권과 도시의 명예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

3) 공동체의 지도자로 복음서 기자의 임무를 상술한 것으로는 Gerd Theissen, *Gospel Writing and Church Politics: A Socio-rhetorical Approach* (Hong Kong: CUHK, 2001), 3-6를 보라.

4) Mirela Saim, “Saint Paul’s ‘Conflict of Convictions’: a Discourse of Rhetorical Controversy in the Context of Early Christianity-the Speech on Areopagus,” *ARC* 34 (2006), 89-105는 초대 교회의 논쟁적 정황과 아레오바고 연설의 관계를 연구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빌 3:7-9a)<sup>5)</sup>라고 선언한다. 이 선언은 바울이 유대 혈통과 율법 행위, 바리새파적 열심과 신분을 사랑하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한 말 가운데 나온다. 바울은 자신도 그들에 못지않은 것들을 지녔으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해’로 여긴다고 단언한다. 이는 이 땅의 명예 및 지위와 관련된 도시의 시민권도 마찬가지이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서 (빌 3:20) 이 땅의 소속을 나타내는 어떤 ‘권리’도 상대화한다. 이와 같이 서신서의 바울은 유대적 유산이나 헬라, 로마 시민권을 평가 절하한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바울은 서신서의 바울과는 사뭇 다르다. 사도행전의 바울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작지 않은 그 도시의 시민권자입니다”(사역, 21:39 ἐγὼ ἄνθρωπος μὲν εἶμι Ἰουδαῖος, Ταρσεὺς τῆς Κιλικίας, οὐκ ἀσήμου πόλεως πολίτης).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폭동 가운데 간신히 목숨을 건진 바울은 폭동의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는 서슬 퍼런 천부장의 심문을 받고 주저 없이 자신을 유대인이자 다소 시의 시민이라고 천명한다. 바울이 자신을 유대인이자 다소 시의 시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급박한 순간에 다소 시민권자라고 내세우는 바울의 선언이 문맥이나 이야기 정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라고 밝힌 것은 자연스럽지만 다소 시민권자라고 드러낸 것은 이야기의 흐름에서 어긋난다는 것이다. 일견 그러한 의견은 설득력 있다. 천부장은 이후에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중요한 신분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바울을 다루는데 참조했지만(행 22:25), 다소 시민권은 천부장에게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않은 듯 보인다.<sup>6)</sup> 나아가 사도행전 자체에서 바울의 다소 시민

5)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성서 인용은 『개역개정』을 사용한다.

권이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견해도 있다. 레가스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다소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과는 달리 ‘고립된’ 것이고,<sup>7)</sup> 단지 로마 시민권을 보충하는 정도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간 간과했지만 바울이 다소 시민, 다소 시민권자라고 드러나는 단락은 사도행전에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 ‘다소 시민권자’ 바울은 누가 기자가 중요하게 밝히고 싶은 바울의 신분이었다.<sup>8)</sup> 이는 최초로 바울의 다소 시민, 다소 시민권이 언급되는 장면부터 확연히 드러난다.

핍박자 바울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지 않고 활동의 범위를 다메섹으로 넓히고자 한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된다(행 9:1-9). 이 만남으로 사울은 시력을 잃고 다메섹의 한 집에 머문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는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에게도 현현하여(행 9:10) 직가라 하는 거리의 유다의 집에서 머무는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한다. 그 현현 장면에서 예수는 아나니아에게 방문하라고 한 그 인물을 ‘다소 사람 사울’(Σαῦλος Ταρσέα)이라고 부른다(행 9:11). 내러티브에서 한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그 내러티브에서 결정적 권위를 갖는 인물이 그를 규정할 때이다.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최종적 권위를 갖는 인물인 예수가 사울을 ‘다소 사람’으로 부른 것은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 사도행전의 예수가 사울을

6) 예를 들어, 카시디(Richard J. Cassidy)는 “천부장은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곳의 정보(다소 시의 시민권)도 이곳에서 바울을 도울 수 없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곳에서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은 언급하지 않고 대신 다소 시민권만을 자랑스럽게 강조한 누가의 보도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Society and Politics in the Acts of the Apostles* (Maryknoll: Orbis Books, 1987), 101.

7) Simon Légasse, “Paul’s Pre-Christian Career according to Acts,” Richard Bauckham, ed.,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Grand Rapids: Eerdmans, 1995), 365-390. 인용은 368.

8)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학철, 『사도 바울-사도행전의 바울과 유대교, 헬레니즘, 로마제국의 통치』 (서울: 강남출판사, 2006), 59-66을 보라.

우선적으로 ‘다소 사람’으로 불렸다면, 그것은 누가 사도행전의 독자들에게 사울을 무엇보다도 ‘다소 사람’으로 인식해달라는 암묵적 요구가 된다.

이후 ‘다소’가 다시 등장한 것은 9장 19절 이하의 이야기 단락에서이다.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눈을 뜨고 난 후 다메섹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사울은 곧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고, 이는 그곳의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 곧바로 사울에 대한 살해 음모가 진행되었고 다메섹의 제자들은 사울을 극적으로 피신시켜야 했다. 결국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간다(9:19-25). 그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통해 제자들과 사귀게 되고, 헬라파 유대인과 변론하며 예수를 전하지만 그곳에서도 살해 위협을 당한다. 이 때 사울이 피신한 곳이 바로 ‘다소’이다(9:26-30).

피신의 맥락에서 ‘다소’가 다시 등장한 것을 문학적인 장치로 볼 수 있다. 곧, 이전 이야기와 이후에 진행될 이야기의 흐름을 연결하는 문학적 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sup>9)</sup> 물론 그러한 문학적 기법에 누가는 둔감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메섹과 예루살렘, 그 두 곳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바울에 대한 살해 음모라는 긴장감을 감안하면 이 때 피신처로 등장하는 ‘다소’는 바울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관용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준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독자들은 이른바 ‘회심’ 후 곧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에서의 선교 때문에 살해 위협을 겪은 바울이 다소에서 그저 가만히 있었으리라고 상상하지 않는다. 도리어 독자들은 사울이 그곳 다소에서도 복음을 열렬히 전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누가 기자는 바울이 다소에서 어떤 어려움도 겪었다는 것을 보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누가의 침묵은 ‘다소’가 바울의 선교에 극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도시가 바울을 위협하지도 않은, 다시 말해 복음 전파를 수용할 만한 관용을

9) Robert C. Tannehill,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A Literary Interpreta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124를 보라.

갖춘 도시라고 은연중 부각시킨다. ‘관용’이 헬라 세계에서 주요한 덕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용의 면에서 다소는 다메섹, 예루살렘과 비교할 때 우위를 점한 도시로 독자들에게 인식된다.<sup>10)</sup> 이후 다소는 바나바가 동역을 위하여 사울을 방문하는 곳에서 재차 등장하고(11:25),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2장 39절에서 마지막으로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자신을 ‘다소 시민권자’로 밝힌 것이 그리 무리가 아니다. 바울은 ‘다소’라는 도시, 곧 다른 이들을 폭력적으로 자극하지 않은 관용의 도시 ‘다소 시민권자’라고 밝혀 그 도시의 관용과 명예를 빌어 자신이 폭동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천부장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다소 시가 바울 당시 누렸던 명예와 명성을 고려하면 위의 논증은 더욱 힘을 얻는다.

다소는 그 시대 문화와 학문의 도시로 이름을 떨쳤다. 그곳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는데, 폼페이우스 정복 이후 그 도시는 로마 속주의 수도였다. 아우구스투스는 그곳에 세금을 면제해 주었고, 이것은 그 도시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를 띠었다.<sup>11)</sup> 고대 지리학자로 불리는 스트라보(Strabo)는 “다소의 사람들은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 도 매우 헌신적이다.”(Strabo, *Geography*, xiv, 5, 12-15)라며 동시대인의 인식을 반영한다. 랩스키는 이러한 다소의 명성을 배경으로 로마 시민권자보다 다소 시민권자라고 밝힌 바울의 언사가 어색하다는 견해에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그의 다소 시민권은 천부장에게 커다란 인상을

10) 예를 들어, 로마는 자신들이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게 된 주요한 이유가 그들의 위대한 덕에 있다고 선전했다. ‘관용’과 ‘자비’는 물론 그러한 덕 중에 속한다. L. R. Lind, “Concept, Action, and Character: The Reasons for Rome’s Greatness,”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103 (1972), 235-283; J. Rufus Fears, “The Theology of Victory at Rome,” *ANRW* 17:2 (1980), 736-826.

11) Jerome H. Neyrey, “Luke’s Social Location of Paul: Cultural Anthropology and the Status of Paul in Acts,” Ben Witherington, III, ed., *History, Literature, and Society in the Book of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6), 251-279 중 271을 보라.

남기지 않지만 이것은 그 백부장의 촌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sup>12)</sup>

위와 같이 헬라 도시의 명예와 그것의 시민권은 사도행전에서 결코 평가 절하되지 않는다. 도리어 사도행전의 바울에게 ‘다소’는 명예와 관용의 도시로 남아 있다. 누가는 지중해 세계에서 존중받는 도시의 명성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도리어 그 명예와 명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가 헬라 도시와 그 시민권의 중요성을 신앙의 본질과 연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신앙의 형성 및 성장과 관련된 곳은 비록 핍박을 받은 곳이지만 다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누가가 헬라 도시와 그 시민권의 명예를 적극적으로 높인다기보다는 그것의 명성을 존중하여 절하하지 않는 반면, 신앙과 그것을 연관 짓지 않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3. 폄하되지 않는 헬라의 지혜

서신서의 바울은 헬라 지혜에 대해 짐짓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헬라 지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전 2:1-2). 그러나 바울이 서신서를 작성할 때 헬라의 수사학을 충분히 사용했다는 것은 이미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사안이다.<sup>13)</sup>

12) J. C. Lentz, *Luke's Portrait of Paul*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3), 29-30.

13) 예를 들어, 로마서 전체에서 사회수사학적 요소를 발견하는 다음의 주석을 보라. Ben Witherington, III, *Paul's Letter to the Romans-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04).

한편 사도행전의 바울에게 헬라의 지혜는 전면적 부정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헬라의 지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나 실마리이다. 물론 헬라 지혜의 한계가 바울의 연설에 지적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쓸모없고 악한 것으로 정죄하진 않는다. 도리어 일부 학자들은 누가가 그리는 아테네의 바울 모습에서 소크라테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역설한다.

헨헨(E. Haenchen)은 사도행전의 바울, 특별히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있는 바울을 분석하면서 “누가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소크라테스의 그림자를 그리고 있다.”고 주석한다.<sup>14)</sup> 소크라테스는 이교 철학자의 상징이지만 그는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배척되기보다는 도리어 존경을 받았다.<sup>15)</sup> 몇몇 부분에서 사도행전의 바울과 소크라테스는 병행을 이룬다. 둘 다 광장에서 사람들을 향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설득한다. 아테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와 바울이 새로운 신을 소개하고 있다고 여긴다. 새로운 신을 소개하고 풍속을 망친다는 이유로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서고, 바울도 아레오바고에 서게 된다.<sup>16)</sup>

이와 같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서 소크라테스와 같은 모습을 한 채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지혜 전통에 따라 자신의 복음을 설명한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헬라의 지혜가 더듬어 찾던, 그러나 확실히 알지 못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선언한다. 17장

14) E. Haenchen, *The Acts of the Apostles*, R. McL. Wilson, tran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1), 527-528.

15) 예를 들어, 사모사타의 루시안(120-180 CE)의 기록을 보라(*Somnium* 13). 루시안은 소크라테스가 초기 교회에서도 존중받는 인물이었다고 기록한다. 나아가 샌데스(Karl O. Sandnes)는 이 견해를 확증하며 초기 기독교 작가들 중 일부가 소크라테스를 예수의 원형(prototype)으로 제시하고 있는 글을 증거로 제시한다. K. O. Sandes, “Paul and Socrates: The Aim of Paul’s Areopagus Speech,” *JSTT* 50 (1993), 13-26.

16) 기본은 더 나아가 바울에게 소피스트의 면모를 찾는다. Mark D. Given, “The Unknown Paul: Philosophers and Sophists in Acts 17,”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Seminar Papers* 35 (1996), 343-351. 더 깊은 논의는 김학철, 『사도 바울』, 66-74을 보라.

23절은 이를 확연히 보여준다. 그곳에서 바울은 “여기 저기 다니며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르면서 경배하는 그것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사역, 17:23)라고 말한다. 물론 바울이 선포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이다. 그러나 누가는 헬라의 지혜와 이스라엘 전통에서 고백되는 야웨를 직접 연결하지는 않는다.

유상현은 누가가 이곳에서 헬라 세계의 ‘알지 못하는 신’과 야웨를 직접 연결하지 않아 신학적 거리를 만든다고 정교하게 분석한다. ‘알지 못하는 신’을 가리키는 23절의 두 번의 중성적 표현 ‘ὁ’와 ‘τοῦτο’이 바로 그러한 거리를 만든다는 것이다.<sup>17)</sup> 야웨를 가리키려면 마땅히 남성 관사나 대명사를 사용해야 한다. 누가의 이런 표현은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매우 정치(精緻)한 장치이다. 곧 이것은 헬라의 지혜와 진정한 하나님 인식을 멀게 하는 것도, 그렇다고 완전히 잇닿게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동시대 유대인의 편벽한 헬라 지혜를 폄하하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며 말의 지혜를 배격한 서신서의 바울과 비교할 때 사도행전의 바울의 발언은 헬라 지혜를 절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울은 또한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의 말, 곧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17:27)를 인용하며<sup>18)</sup> 자신의 복음과 아테네 사람들의 지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고,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연설 가운데 성서를 인용하는데(2:30-31; 4:25-28; 7:48-53; 13:29, 33-37, 40-41 등),<sup>19)</sup>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바울은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

17) 유상현,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268를 보라.

18) H. Conzelmann, *Acts of the Apostles*, J. Limburg, A. Th. Kraabel, and D. H. Juell, tra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144-145.

19) 사도행전의 구약 인용에 대해서는 Bill T. Arnold, “Luke’s Characterizing Use of the Old Testament in the Book of Acts,” Ben Witherington, III, *History*,

의 말을 인용한다. 이러한 인용은 아테네의 청중과 함께 아테네의 시인들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나아가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더듬어, 발견’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17:27). 마샬(I. H. Marshall)은 이 의미가 철학적 탐구를 포함할 수 있지만 그보다 구약적 의미, 곧 인간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함을 엄숙하게 갈망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평한다.<sup>20</sup> 물론 바울의 말에서 구약의 반향을 느낄 수 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더듬고, 발견하는 여러 언급들이 있다. 그러나 이 연설의 청중이 아테네 사람들, 그것도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데려간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또 그들의 철학적 전통 가운데 신성을 찾고, 더듬고, 발견하려는 노력이 풍성하게 존재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굳이 바울의 말을 구약적 의미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 바울은 이곳에서 헬라의 지혜가 ‘알지 못하는 신’을 상정했고, 그 신을 찾고, 더듬고,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연결된다는 점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한다. 헬라의 지혜는 일방적으로 평가 절하되지 않고 나름의 성과와 가능성을 인정받는다.

어떤 이들은 헬라의 지혜를 폄하하지 않고, 그것을 존중하는 바울의 말을 선교 정황에서<sup>21</sup> 청중에게 수사학적인 호의를 얻으려는 시도로 간주하며 그 의의를 감소하려 할 것이다. 바울이 헬라의 지혜를 인용하고 그것의 방향 설정을 긍정하며,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발언은 모두 선교적 정황에서 청중들의 호의를 이끌어내려는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

---

*Literature, and Society in the Book of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300-323. 보수적인 견해를 살펴보려면 F. F. Bruce, “Paul’s use of the Old Testament in Acts,” *Tradition and interpretation i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7), 71-79을 보라.

20) I. H. Marshall, *The Acts of the Apostle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80), 288.

21) Dean Flemming, “Contextualizing the Gospel in Athens: Paul’s Areopagus Address as a Paradigm for Missionary Communication,” *Missiology* 30:2 (2002), 199-214.

그러나 선교 상황에서 호의를 얻고자 하는 수사학이 곧바로 본의(本意)를 분식(粉飾)한 거짓 꾸밈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사도행전의 바울은 헬라의 지혜를 평가절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지혜 모두를 고스란히 긍정하는 것도 아니다. 누가는 헬라의 지혜가 가진 나름의 가치를 과격하게 폄하하기보다는 그것의 가능성과 의의를 무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울의 연설을 보도한다.

#### 4. 인류의 문제 안에 포함된 헬라의 문제

사도행전의 바울이 헬라 도시와 그 시민권의 명예를 존중하고 헬라의 지혜를 폄하하지 않았다는 앞의 논증은 비판적 독자들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사도행전의 보도는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해서 온 도시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아 ‘격분’(παρωξύνετο)했다고 한다. ‘격분’은 칠십인 역 등에서 우상을 향하여 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개심과 심정을 나타낼 때 종종 쓰이던 용어이다(신 29:27 등). 다소 시 출신이자 선교 여행을 하며 헬라 도시의 여러 ‘우상’에 이미 익숙했을 바울이 아테네의 우상을 본 것 때문에 격분했을 리는 없다. 문제는 우상이 ‘가득한’(κατείδωλον) 데 있었다. 바울은 노련한 선교사답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았고, 이미 살펴보았듯이 헬라의 지혜를 폄하하지 않고 그것을 존중하고 인용하면서 연설을 진행한다. 바울은 17장 24-25절에서 헬라의 축적된 지혜가 옳지 않은 결과를 낳은 것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바울의 비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건물, 곧 신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17장 24절은 이를 이와 같이 표현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 구절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천지의 주재’(οὐρανοῦ καὶ γῆς κύριος)라는

표현이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표현은 이른바 신, 구약 중간기 문헌인 토비트서와 유딧서, 필로와 몇몇 랍비 문헌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표현은 위의 문헌들에서 특별히 우주의 창조자와 역사의 주관자를 강조할 때 사용되었다.<sup>22)</sup> 바울은 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전에 거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여기서 신전은 인간의 지적 체계나 인식 범위를 상징한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 곧 헬라의 지적 세계 안에 하나님은 갇히지 않으며, 이로서 그들은 하나님께 오는 계시를 필요로 한다.

바울의 두 번째 비판은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에 들어 있다. 이 비판은 헬라인들이 만민의 하나님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이 때문에 빚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부적절한 태도에 관한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섬김’ 그 자체를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신적 존재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나 도덕적으로는 부족한 존재로 상징하고 그 신적 존재를 제사와 같은 행위로 위무(慰撫)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거부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지만 변덕스럽고 뻔뻔한 신 관념을 거절한 것이다.<sup>23)</sup> 도리어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는 참 하나님에 대한 아테네인들의 무지를 들추어낸다.

17장 26절이 이어지는 바울의 비판인지, 27절과 연결되어 창조의 목적을 설명한 것인지 논란이 있다. 회버(Robert G. Hoerber)는 이것을

22) ‘하늘과 땅의 주님’이라는 표현의 전승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김학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마태복음의 하나님 상의 일면,” 「신약논단」 15:1 (2008), 37-67을 보라.

23) 헬라 신화에서는 최고의 신 제우스는 여러 성격적 결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후 발전된 신화적 담론에서 제우스는 그런 결함이 제거된 채 이상적 후원자로, 아버지 이미지로 나타난다. T. R. Stevenson, “The Ideal Benefactor and the Father Analogy in Greek and Roman Thought,” *Classic Quarterly* 42 (1992), 421-436.

비판으로 간주하면서 이렇게 설명한다. “모든 민족을 창조한 하나님을 특정한 도시와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다(행 17:26). 도시와 신들을 동일시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일상적인 특징이었다.”<sup>24)</sup> 그러나 27절은 헬라인이나 그 지혜의 잘못을 비판하기보다 헬라인들의 자랑이 시대적 한계를 가졌고, 지역적으로 한정되었다고 말한다. 바울은 헬라의 지혜를 존중했지만 그것의 공백, 곧 ‘무지’를 이미 17장 23절에서 지적했다. 이어 그 ‘무지’는 17장 30절에 다시 나온다.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부족한 생각을 부분적으로 용납했다고 밝힌다. 따라서 연설의 전후 문맥 안에서 27절은 헬라 지혜의 근본적인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는 역할을 한다.

바울이 헬라인의 지혜를 근본적으로 ‘무지’의 시대 안에 놓인 것으로 규정했다는 위의 분석은 일견 바울이 헬라 도시와 그것의 지혜를 폄하하지 않았다는 이 논문의 근본 주제와 상치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점검한 비판은 사도행전에서 단지 헬라인과 그들의 지혜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유대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판이다. 헬라인들과 그들 지혜의 시대적 ‘무지’에 대한 바울의 지적은 단지 헬라인들만의 한계가 아니라 인류 모두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곧 헬라인들의 문제는 인류의 문제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유대인들도 헬라인들과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헬라인들이 신전에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했다고 믿었던 것과 같이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의 성전, 곧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배타적으로 거주한다고 생각하였다. 스위니(James P. Sweeney)가 역설하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성전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공간이다.<sup>25)</sup> 그러나 그 상징적

24) Robert G. Hoerber, “Paul at Athens,” *Conf* 21 (1995), 202-205, 인용 203.

25) James P. Sweeney, “Stephen’s Speech (Acts 7:2-53): Is It as “Anti-temple” as Is Frequently Alleged?” *Trinity Journal* 23:2 (2002), 185-210. 사도행전의 성전이 부정적으로 보도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Joseph B. Tyson, *Images of Judaism in Luke-Acts*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992), 183-185를 참고하라. 반대로 성전이 긍정적으로 묘사된다는 견해를 위해서는 F. D. Weinert, “The

중요성은 성전만 하나님의 배타적 임재 공간이라는 생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는 스테반의 연설에서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히 나타난다. 7장 44-50절에서 스테반은 예루살렘 성전, 곧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고 이사야 66장 1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비판한다.

다음으로 유대인들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행위로 그들의 하나님을 위무하려 한다. 스테반의 고발에 따르면 유대인 박해자들과 그들의 선조들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다(7:53). 그리고 이 때문에 분노할 것이라 예상되는 하나님을 ‘제사’라는 행위로 달래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달래려는 시도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것이다. 제의에 대한 이런 비판적 생각은 누가 기사가 성전의 본래 기능을 제의에서 기도, 가르침, 치유 등으로 옮기는 데에서 확인된다(눅 19:45-48).<sup>26)</sup> 나아가 유대인들 역시 헬라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다.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고발되는 것처럼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인 대중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그러한 무지가 예수를 죽게 했다(3:17; 13:27). 그리하여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무지’함을 들추며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였다(3:19). 이는 바울이 아테네인의 무지를 지적하며 회개할 것을 주문한 것과(17:30) 정확하게 병행된다.

이와 같이 아테네인 및 그들의 지혜의 한계를 적시하고 그것의 잘못된 결과에 대한 바울의 비판은 인류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비판이지 단지 헬라인들만 공격이 아니다.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전 인류가 처한 무지를 그들의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행한 비판은 브루스(F. F. Bruce)의 평가

---

Meaning of the Temple in Luke-Acts,” *BTB* 11:3 (1981), 85-89; idem, “Luke, Stephen and the Temple in Luke-Acts,” *BTB* 17:3 (1987), 88-90를 참고하라.

26) Geir Otto Holmas, “‘My House Shall be a House of Prayer’: Regarding the Temple as a Place of Prayer in Acts within the Context of Luke’s Apologetic Objectiv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27:4 (2005), 393-416.

처럼 구약의 조명에 따른 비판이라기보다는<sup>27)</sup> 시대의 무지를 벗어난 기독교인으로서의 비판이다. 그것도 워더링톤의 견해처럼 유대교적 기독교인의 단일신적 맥락에 따른 비판이라기보다<sup>28)</sup> 동시대인들의 무지를 깨우치던 소크라테스적 기독교인의 비판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적절하다.<sup>29)</sup>

## 5. 요약과 결어-누가 공동체의 문화 갈등 극복의 길

누가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된 공동체로 인종과 그에 따른 문화적 차이로 공동체 내, 외부의 갈등을 겪고 있었다. 공동체 지도자였던 누가 기자는 인종 및 문화와 관련한 누가 공동체 내, 외부적 갈등과 문제를 조정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할 책무가 있었다.

누가 기자에게 바울의 아테네 선교 이야기, 그 중에서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연설은 그 문제를 다루기에 매우 적합한 자리였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다소 시(市)의 관용과 다소 시민권의 명예를 존중한다. 이는 누가가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상징적 중요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과 병행된다.<sup>30)</sup> 또한 누가는 바울이 아레오바고 연설에서 헬라의 지혜를 폄하하지 않도록 한다. 도리어 서신서의 바울과는 달리 사도행전의 바울은 헬라의 지혜를 자신의 복음 이해에 접근하게 하는 통로로 인정한다. 이것은 사도행전이 율법의 가치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27) F. F. Bruce,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 Com., 1990), 522.

28) Ben Witherington III, *The Acts of the Apostle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 Com., 1998), 524.

29) 이것이 누가 공동체에 갖는 함의에 관해서는 김학철, 『사도 바울』, 82-86을 보라.

30) Nicholas H. Taylor, "The Jerusalem Temple in Luke-Acts," *Hervormde theologiese studies* 60:1-2 (2004), 459-485.

것에 유비할 수 있다.<sup>31)</sup> 물론 아레오바고 연설을 통해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무지로 인한 우상 숭배를 두고 회개를 촉구한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는 단지 헬라적 지혜의 한계와 어리석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아테네인들을 비판했던 그 비판을 베드로나 스테반이 유대인들을 향해 하도록 배열하여 아레오바고 연설에서 비판당한 헬라 지혜의 한계와 실패는 유대인을 포함한 ‘무지의 시대’에 처한 인류의 문제가 되도록 한다. 곧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의 구원 역사, 성령에 관해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무지’했고, 그들 모두 회개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 같은 논의를 토대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혼합된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누가 기자가 공동체 내, 외부에서 벌어진 인종, 문화적 충돌과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추론할 수 있다.

먼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종이나 출신 도시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종이나 출신 도시를 심지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그것이 신앙의 본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다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문화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들의 율법을 폐기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찾고, 더듬고, 발견해 왔던 지혜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의 ‘이전’ 삶이 ‘무지’의 시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고백하고, ‘회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로써 누가는 신앙과 본질적으로 관계없는 인종이나 출신 도시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무시하여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동시에 율법이나 지혜를 서로 폄하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나아가 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이전 삶의 양식이 ‘무지’한 것임을 자각하고 다른 삶의 방식, 곧 ‘회개’의 삶을 살라고

---

31) Craig L. Blomberg, “The Law in Luke-Act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22 (1984), 53-80.

촉구한다. 이는 공동체 외부를 향해서도 일정한 방향감을 갖게 한다.

선교하는 공동체로서 누가 공동체는 선교 대상자의 인종이나 출신 도시(지위)를 존중하도록 한다. 나아가 그들의 문화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그 문화와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누가 공동체는 복음이 근본적으로 ‘무지’의 시대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이러한 누가의 기획이 현재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는 현대의 상황에 대한 고려 속에서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아마도 이것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그레코-로만 세계를 향해 선교하던 누가 공동체가 택한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 <주요어>

사도행전, 바울, 아레오바고, 누가 공동체, 문화 갈등

### <Key Words>

Paul in Acts, Areopagus, the Lukan Community, Ethnic and Cultural Conflicts

### 참고문헌

- 김학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마태복음의 하나님 상의 일면,” 『신약논단』 15:1 (2008), 37-67.
- 김학철, 『손으로 읽는 신약 성서』, 서울: 크리스천헤럴드, 2006.
- 김학철, 『사도바울 - 사도행전의 바울과 유대교, 헬레니즘, 로마제국의 통치』, 서울: 강남출판사, 2006.
- 유상현,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유상현, 『사도행전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Arnold, Bill T., “Luke’s Characterizing Use of the Old Testament in the Book of Acts,” Ben Witherington, III, *History, Literature, and Society in the Book of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300-323.
- Blomberg, Craig L., “The Law in Luke-Act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22 (1984), 53-80.
- Bruce, F. F.,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 Com., 1990.
- Bruce, F. F., “Paul’s Use of the Old Testament in Acts,” *Tradition and Interpretation i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7, 71-79.
- Cassidy, Richard J., *Society and Politics in the Acts of the Apostles*, Maryknoll: Orbis Books, 1987.
- Conzelmann, H., *Acts of the Apostles*, J. Limburg, A. Th. Kraabel, and D. H. Juel, tra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 Fears, J. Rufus, “The Theology of Victory at Rome,” *ANRW* 17:2 (1980), 736-826.
- Flemming, Dean, “Contextualizing the Gospel in Athens: Paul’s Areopagus Address as a Paradigm for Missionary Communication,” *Missiology* 30:2 (2002), 199-214.
- Given, Mark D., “The Unknown Paul : Philosophers and Sophists in Acts 17,”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Seminar Papers* 35 (1996), 343-351.
- Haenchen, E., *The Acts of the Apostles*, R. McL. Wilson, trans., Philadelphia: The

- Westminster Press, 1971.
- Hoerber, Robert G., "Paul at Athens," *ConJ* 21 (1995), 202-205.
- Holmas, Geir Otto, "'My House Shall be a House of Prayer': Regarding the Temple as a Place of Prayer in Acts within the Context of Luke's Apologetic Objectiv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27:4 (2005), 393-416.
- Légasse, Simon, "Paul's Pre-Christian Career according to Acts," Richard Bauckham, ed.,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 Com., 1995, 365-390.
- Lentz, J. C., *Luke's Portrait of Paul*,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3.
- Lind, L. R., "Concept, Action, and Character: The Reasons for Rome's Greatness,"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103 (1972), 235-283.
- Marshall, I. H., *The Acts of the Apostle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 Com., 1980.
- Moxnes, Halvor, "The Social Context of Luke's Community," *Gospel Interpretation*, Harrisburg, Pa: Trinity Pr Int, 1997, 166-177.
- Neyrey, Jerome H., "Luke's Social Location of Paul: Cultural Anthropology and the Status of Paul in Acts," Ben Witherington, III, ed., *History, Literature, and Society in the Book of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6, 251-279.
- Saim, Mirela, "Saint Paul's 'Conflict of Convictions': a Discourse of Rhetorical Controversy in the Context of Early Christianity - the Speech on Areopagus," *ARC* 34 (2006), 89-105.
- Sandes, K. O., "Paul and Socrates: The Aim of Paul's Areopagus Speech," *JSNT* 50 (1993), 13-26.
- Sweeney, James P., "Stephen's Speech (Acts 7:2-53): Is It as 'Anti-temple' as Is Frequently Alleged?" *Trinity Journal* 23:2 (2002), 185-210.
- Tannehill, Robert C.,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A Literary Interpreta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 Taylor, Nicholas H., "The Jerusalem Temple in Luke-Acts," *Hervormde*

*Teologiese Studies* 60:1-2 (2004), 459-485.

Theissen, Gerd, *Gospel Writing and Church Politics: A Socio-rhetorical Approach*, Hong Kong: CUHK, 2001.

Tyson, Joseph B., *Images of Judaism in Luke-Acts*,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992.

Weinert, F. D., "Luke, Stephen and the Temple in Luke-Acts," *BTB* 17(1987.3.), 88-90.

Weinert, F. D., "The Meaning of the Temple in Luke-Acts," *BTB* 11 (1981.3.), 85-89.

Witherington, III, Ben, *Paul's Letter to the Romans-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4.

Witherington, III, Ben, *The Acts of the Apostle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 Com., 1998.

<초록>

## 아레오바고에 선 사도 바울

김학철

(연세대학교 강사, 신약학)

누가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된 공동체로 인종과 문화를 둘러싸고 공동체 내·외부의 갈등을 겪고 있었다. 공동체의 지도자인 누가는 사도행전의 바울, 특별히 바울의 아테네를 방문과 그의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보도하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우선적으로 ‘다소 시민’으로 밝혀지고, 다소 시민권을 명예롭게 주장한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다소’는 관용의 도시로 존중받는다. 나아가 사도행전의 바울은 아레오바고 연설로 헬라의 지혜를 폄하하기보다는 그것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헬라 시인의 말을 인용하며 그 권위를 인정한다. 물론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무지’의 시대에 속해 있던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촉구한다. 그러나 누가는 바울이 아레오바고 연설에서 아테네인들을 향해 비판했던 내용을 베드로와 스테반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비판과 병행하게 한다. 이를 통해 헬라 지혜의 한계와 실패는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인류의 문제 안에 포함 된 것으로 처리한다.

누가는 위와 같은 이야기 전개로 인종, 문화와 관련하여 내·외부의 갈등을 겪고 있던 누가 공동체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곧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종이나 출신 도시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종이나 출신 도시를 심지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문화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필요가 없

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들의 율법을 폐기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찾고, 더듬고, 발견해 왔던 지혜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의 ‘이전’ 삶이 ‘무지’의 시대에 놓여있다고 고백하고, ‘회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한편, 선교하는 공동체로서 누가 공동체는 선교 대상자의 인종이나 출신 도시(지위)를 존중하도록 한다. 나아가 그들의 문화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그 문화와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누가 공동체는 복음이 근본적으로 ‘무지’의 시대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Abstract>

## Paul at the Areopagus

Dr. Hak Chol Kim  
(Yonsei University)

The Lukan community as a mixed community of Jewish and gentile Christians and as a mission community for Jews and gentiles faced with ethnic and cultural conflicts. Luke the writer and leader tried to solve the problems by way of narrating Paul's identity and his Areopagus speech.

In Acts, on the one hand, Paul was first identified by Jesus as a citizen of Tarsus which was renowned for its tolerance, and he honorably declared himself as a Tarsus citizen to a Roman officer interrogating his identity. Further, he did not devalue the Athenian/Hellenistic wisdom but acknowledged its

authority by quoting a Greek poem in his speech.

On the other hand, Paul criticized the Athenian wrong ideas about God and urged them to repent their sins ‘in the times of ignorance.’ Paul’s criticism against the Athenians, however, was not different from Peter and Stephen’s disapproval of the Jews in Acts. With this scheme, Luke let his readers understand the limitation and failure of the Athenians not just as their own but as part of humankind’s.

In the context of the ethnic and cultural conflicts within the Lukan community, the narrative of Paul’s identity and his speech in Areopagus encouraged his community members as follows: in community, members should respect other’s ethnicity and home city, and they did not have to devalue their own cultural background. They, however, should confess that they need to repent their wrong ideas about God in the time of ignorance. Although the Lukan members as missionaries proclaimed the repentance of sins, they had to esteem the audience’s ethnic and cultural conditions, and they did not need to abandon their tradition as a whole. Furthermore, the Lukan missionaries tried to make contact points between the Gospel and the audience’s custom.